



# 굴원의 유배시 연구

임 향 란  
중국사천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유배시 스케치
3. 「이소」 집중조명
4. 나가는 말



# 굴원의 유배시 연구

임 향 란

중국사천외국어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초사(楚辭)』는 중국문학사에서 사실주의문학의 시원을 이룬 『시경(詩經)』과 쌍벽을 이루며, 낭만주의문학의 시원을 이루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초사학(中國楚辭學)’이 형성될 법도 하다. 그런데 이 『초사』는 초(楚)나라 지역에서 불리던 시가로서 굴원에 의해 정초지어진다. 그것은 굴원의 작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일부 동시대 사람들의 작품이 포함된 종합시집이다.

굴원(屈原, 기원전 약 340~278)은 1953년 세계평화이사회에서 4대 세계문화명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다. 그러니 ‘중국굴원학회’도 설립될 만하다.

굴원의 작품은 대부분 ‘강녘에서 읊었다[行吟澤畔]’ 하여 유배시기에 지어진다. ‘일종의 울분을 토로한[發憤而抒情]’ 산물에 다름 아니

다. 『이소(离騷)』는 전형적인 보기가 되겠다.

굴원은 두 번의 유배를 가게 된다. 한 번 혹은 세 번 갔다는 주장도 없지 않으나 두 번 유배설이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다.<sup>1</sup>

『사기(史記)』, 『新序(신서)』 등 고대 전적의 기재에 보면 첫 번째는 약 40세 좌우인 초희왕(楚懷王) 25년(기원전 304) 때 상관대부(上官大夫) 등이 ‘왕에게 참소[讒之於王]’ 하여 회왕(懷王)이 ‘노하여 굴평을 멀리했다[怒而疏屈平]’ 고 하여 결국 좌도(左徒)직을 박탈당하고 한북(汉北)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기간은 약 3년 좌우로 그리 길지 않았다. 그래서 「복거(卜居)」에 보면 ‘굴원은 유배되어 3년간 볼 수 없었다[屈原既放，三年不得复见]고 했다.

두 번째는 초나라 경양왕(顷襄王) 6년(기원전 293) 때 ‘자란이 역시 굴원을 참소했기[子蘭亦讒屈原] 때문에 ‘경양왕이 노하여 좌천을 시켜 [顷襄王怒而遷之]’ 강남(江南)으로 유배를 보냈다. 이때가 약 기원전 286년으로 굴원의 나이는 67세 고령이었다. 『사기』에는 굴원의 유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굴원이 이미 추방되어 강담에 노닐때 강반을 걸어가면서 시를 읊는데,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여위었더라. 어부가 보고 물어 가로되, “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닌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이르렀는가?” 굴원이 가로되 “온 세상이 다 흐렸는데 나 홀로 맑으며, 못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나 홀로 깨었으니 이로써 추방을 당함일세.” 어

1. 어떤 학자들은 굴원이 단지 경양왕(顷襄王) 때 한 번 강남(江南)에 유배되었다고 한다. 회왕(懷王) 때 ‘소(疏)’는 단지 ‘소원(疏远)’이었지 유배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계의 정설에 따르도록 한다.

부 가로되 “성인은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추이를 같이할 수 있을 것을, 세인이 모두 흐렸으면 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저어 그 물결과 같이 하지 않으며, 못사람이 다 취했으면 어찌하여 그 찌꺼기를 먹는 것과 그 박주를 빨아들이는 것을 하지 않는가. 무슨 까닭으로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하여 스스로 추방을 당하게 하였단 말인가?” 굴원이 가로되 “내 들었읍네,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관을 털고, 새로 몸을 씻은 자는 반드시 옷을 떨쳐서 입는다고, 어찌하여 맑고 밝은 몸이 더러운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차라리 상류에 달려가 고깃배에 장사할지언정 어찌하여 결백한 몸에 세속의 진애를 뒤집어 쓰겠는가.”

屈原至于江濱，被發行吟澤畔，顏色憔悴，形容枯槁 漁夫見而問之曰：“子非三閭大夫歟？何故而至此？”屈原曰：“舉世混濁而我獨清，衆人皆醉而我獨醒，是以見放”漁夫曰：“夫聖人者，不凝滯于物而能与世推移 舉世混濁，何不隨其流而揚其波？衆人皆醉，何不其糟而啜其醢？何故懷瑾握瑜而自令見放為？”屈原曰：“吾聞之，新沐者必彈冠，新浴者必振衣，人又誰能以身之察察，受物之汶汶者乎！寧赴常流而葬乎江魚腹中耳，又安能以皓皓之白而蒙世俗之溫蠖乎！”

이것은 사마천(司馬遷)이 『초사(楚辭)』 「어부(漁夫)」에 근거하고 직접 먹라강(汨羅江)에 가 답사할 때 보고 들은 것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굴원은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혼자 맑고 모든 사람이 취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舉世混濁而我獨清，衆人皆醉而我獨醒]’ 고 한 것은 구차하게 살아남으려 하지 않고 ‘차라리 물의 흐름에 뛰어 들어버렸다[寧赴常流]’ 고 하는 순절순국하려는 숭고한 정신적 경지를 엿볼 수

있다. 굴원은 결국 진(秦)나라에 의해 초나라의 수도 영도(郢都)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영(哀郢)」을 짓고 돌을 들고 강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사기』 「굴원열전」에 보면 굴원이 죽고 난 후 초나라 지역에 송옥(宋玉, 당록(唐勒), 경차(景差) 등 문인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굴원의 작품을 읊고 기록하며 전했다고 한다.

굴원이 죽은 지 백 년 후, 즉 기원전 177년, 24세에 가의(賈誼)는 공경대신들의 배척을 받아 장사왕태전(長沙王太傅)으로 좌천된다. 그는 장안(長安)으로부터 장사(長沙)로 갈 때 멍라강을 지나게 되었는데 굴원이 생각나 유명한 「적굴원부(吊屈原賦, 굴원을 그리는 부)」를 지었다. 이것은 최초로 굴원의 이름과 작품을 문헌기록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20여 년 후 젊은 사마천이 “장사에 가서 굴원이 스스로 빠져죽은 못에 가보고 눈물을 금할 수 없었고 그의 사람됨을 생각했다[適長沙, 觀屈原所自沉淵, 未嘗不垂涕, 想見其為人]” 하며 『사기』에 「굴원열전」을 짓는다. 이로부터 굴원 및 그의 작품은 역대로 중시 받아 왔다.

유배는 굴원 개인의 정치생애에 있어서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굴원 자신의 문학생애에 있어서는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굴원의 몸에서 ‘정치가로는 실패했지만 시인으로는 성공했다[政家敗, 詩家興]’라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전형적으로 보게 된다. 현재 굴원의 유배시는 대개 20여 편<sup>2</sup>으로 집계된다. 굴원의 유배시가 대단한 연구가치를 확보하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굴원의

---

2. 왕일(王逸)은 「이소(騷)」 25편<sup>2</sup>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유배시는 이래저래 많이 연구된 줄로 안다. 그런 만큼 본고는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유배시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름대로 취장보단(取長補短,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논의를 전개해 보려 한다.

본고에서는 『굴원집교주(屈原集校注)』(金开诚, 北京, 中华书局, 1996)를 텍스트로 선정하도록 한다.

## 2. 유배시 스케치

『구장(九章)』이라는 이름은 최초로 서한(西漢) 때 유향(劉向)이 지은 「구탄(九嘆)」에 보인다.

『구장』에서 다 하지 못한 ‘이소’의 뜻을 탄식했다.

嘆『이소(離騷)』以揚意兮, 犹未殫於『九章』.

『구장(九章)』은 원래 단편적으로 창작한 것을 유향(劉向)이 『초사』를 편찬할 때 굴원 작품 가운데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9편을 한 묶음으로 묶은 시가작품집이다. 장기(蔣驥)가 배열한 『구장』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수 「석송」, 그 다음 순서가 「추사」, 「사미인」, 「애영」, 「섭강」, 「회사」, 「비회풍」, 마지막이 「석왕일」이다. 「길송」을 어디 배열할지 몰라 헛갈리다가, 그 시를 간략해서 「회사」 뒤에 두었다.

‘首「惜誦」, 次「抽思」, 次「思美人」, 次「哀郢」, 次「涉

江」, 次「懷沙」, 次「悲回風」, 終「惜往日」惟「桔頌」无可附, 然约略其時, 当在「懷沙」之後.’

왕일(王逸)의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제시한 순서를 보면 「석송」, 「섭강」, 「추사」, 「회사」, 「사미인」, 「석왕일」, 「굴송」, 「애영」, 「비회풍」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굴송」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모두 굴원의 유배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장기(蔣驥)에 의하면 「추사」, 「사미인」은 ‘회왕 때 한북에 쫓겨나 있을 때 지었다[懷王時斥居漢北所作]’ 고 한 것이고 「섭강」, 「애영」은 ‘모두 경양왕 때 강남에 유배되었을 때 지었다[皆頃襄時放于江南所作]’ 고 했다.

「석송(惜誦)」은 부왕(懷王)으로부터 노함을 받아 유배된[怒而疏之] 후 최초로 지은 것이다. ‘지난 일을 애도하면서 근심을 일으키고 분함을 드러내어 속마음을 떨쳐 보인[惜誦而致愍兮 發憤而抒情]’ 작품으로서 ‘정실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재차 지어 속뜻을 밝힌다[恐情質之不信, 故重著以自明]’ 하고, ‘그 뜻이 현혹당하니 스스로 시를 지어 밝힌다[介眇志之所惑兮 窃賦詩之所明]’ 고 하면서 전반 작품을 이끌며 제일 첫 편에 놓인다.

이 작품에서 굴원은 ‘마땅히 군주를 먼저하고 내 몸을 뒤로 하는데 어! 못사람들이 원수라 여기는 구나. 오로지 군주만을 생각하고 다른 마음이 없는데 또한 못사람들이 원수라 여긴다[吾諱先君而後身兮 羌衆人之所仇也 專惟君而无他兮 又衆兆之所讎也].’ ‘급히 임금과 친해지려 하고 다른 뜻이 없었거늘 군주를 섬김에 두 마음이 없는데[疾親君而



無他兮 事君而不貳兮] 라는 것에서 ‘후신(後身), 무타(無他), 불이(不貳)’로서 ‘선군(先君), 전유군(專惟君), 친군(親君), 사군(事君)’을 반복적으로 외운다. 초희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고 소인배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충성을 다하여 군주를 섬겨왔거늘, 도리어 못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쓰이지 않는[竭忠誠以事君兮 反離群而贅肱]’ 억울함을 당한다. 그리고 ‘물러나 고요히 침묵하고 있어 나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소리쳐보지만 또한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願陳志而無路, 退靜默而莫余知兮, 進號呼又莫吾聞]’ 라는 구절에서 자기의 뜻을 피력할 곳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안타까운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어여빠 하여 조용히 지내며 사색에 탐닉하고 시끄러움을 멀리하다[矯茲媚以私處兮 愿曾思而远身]’, ‘어제 내 꿈에서 하늘에 올랐는데 혼이 도중에 건너지 못하였도다[昔余夢登天兮 魂中道而無杭]’ 라며 길신자호(潔身自好, 스스로 한 몸을 깨끗이 하다)의 현실 도피를 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뭇 입은 금도 녹이거늘 애초에 이렇게 놀았기에 위험에 봉착했다[衆口其鑠金兮 初若是而逢殆]’ 를 믿는다. 그리고 ‘나의 눈으로 멀리 두루 보면서 한 번만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 새는 날아 고향으로 돌아오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살던 언덕으로 돌리는데 [曼余目以流觀兮 冀壹反之何時 鳥飛反故鄉兮 狐死必首丘]’에서는 인간의 회귀본능을 토로하고 있다. 「석송」은 한북(漢北)에 유배 갔을 때 ‘자구(自救)’를 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추사(抽思)」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여 근심에 잠겨, 홀로 깊이 탄식하니 슬픔만 더하는구나……슬픈 가을바람 불어 초목이 모습을 바꾸니, 어찌 천지의 운행이 저렇게도 일정치 않는가[心有郁之忧思兮 独永叹乎增伤……悲秋风之动容兮 何回极之浮浮]’로 시작된다.

이어서 ‘옛 군주께서는 나와 언약하시기를, 황혼을 기약으로 삼자고 말씀하셨도다. 아, 도중에 배반하셨는가, 도리어 다른 곳에 뜻을 두시었다니, 그대 용모의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자랑하고, 그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었는데,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고, 어찌해 내게 화를 내시는가[昔君与我成言兮 日黄昏以为期 羌中道而回畔兮 反既有此他志 僑吾以其美好兮 览余以其修擗 与余言而不信兮 盍为余而造怒]’로 임금의 신의 없음을 탓하고 있다.

‘군주는 귀머거리인 양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蓀詳聾而不聞]’, ‘내 말을 탐탐치 않게 여기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신다[敎朕辞而不聽]’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군주와 함께 근심을 다 쏟아 분고 싶어[與美人抽怨兮]’ 했으며 짓궂게 ‘사미인(思美人)’ 한다.

‘흑백이 전도되고 봉황이 아래에 처하고 닭이 날아옴다[變白以为黑兮, 倒上以为下 凤皇在纹兮, 鸡鸞翔舞]’의 흑백이 전도되고 뒤죽박죽이 된 암흑한 현실과 ‘바라기는 멀리 떠나 내 멋대로 달리고 싶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스스로 진정된다[願搖起而橫奔兮, 覽民尤以自鎮]’의 민생고로 마음은 울적하기만 하다. 그래서 ‘발분서정(發憤抒情, 울분을 토로하다)’으로 ‘요이자구(聊以自救, 자기 구책을 마련)하고, ‘작송자구(作頌自救, 읊는 것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구함)’ 한다.

「사미인(思美人)」을 보면 ‘향기와 악취가 섞여서 풍기더라도, 아름다운 꽃은 절로 피어나는 것이로다. 아름다운 향기 물씬물씬 먼 곳까지 이르는 건, 안에 가득 차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 충정과 소박함을 진실로 보전한다면, 아! 가려져 있지만 그 명성은 빛나라라[芳与澤其雜糅兮 羌芳华自中出 紛郁其遠蒸兮 滿内而外揚揚 情与質信可保兮 羌居蔽而聞彰]’로 ‘미인’에 기탁하여 자기의 아름다운 정치적 이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홀로 외로이 남녘으로 가면서 팽함의 옛 일 그리워 하노라[獨茕茕而南行兮 思彭咸之故也]’로 유배의 외로운 신세에 죽음의 음영은 수시로 비낀다.

「애영(哀郢)」은 초나라 경양왕(頃襄王) 21년(기원전 278) 진의 장군 백기(白起)가 초나라의 수도 영도(郢都)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탄을 금할 수 없어 지은 것이다. 그리고 굴원은 먹라강에 빠져 죽는다.

왕원(汪瑗)의 『초사집주(楚辭集注)』에 보면 ‘옛 도읍의 멸망을 서러워하고 임금의 옥됨을 애달파한다. 흘러가고 끝나는 무상함을 느끼며 참소와 질투를 절실히 당했다. 이것이 바로 「애영」을 짓게 된 소이연이다[悲故都之雲亡 傷主上之敗辱 而感己去終古之所居 遭讒妬之永廢 此哀郢之所由作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애영」에서는 ‘소인들이 날마다 저벅저벅 벼슬길에 나간다[衆蹀躞而日進]’는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초나라 임금을 일깨우기도 한다. 즉 소인배들이 ‘임금의 환심을 사느라고 아첨을 하니 임은 진실로 힘이 약하여 버티기 어렵구나[外承歡之沟約兮 諶荏弱而難持]’라는 것이다.

그런데 암매한 초나라 임금은 충언이 귀에 거슬리는 지라 조금도 들어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하늘의 천명은 한결같지 않으니 어찌 백

성들로 하여금 두렵고 허물 있게 하겠는가?〔皇天之不純命兮 何百姓之震愆〕 라며 황천(皇天)의 잘못으로 어찌 백성들이 놀라고 조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질의한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흩어져 서로를 잃고 바야흐로 좋은 봄날에 동쪽으로 옮기게 되었다.……큰 가래나무를 바라보며 크게 탄식하니 흐르는 눈물이 사라기눈처럼 내리는구나〔民離散而相失兮 方仲春而東遷……望長楸而太息兮 涕淫淫其若霰〕’, ‘마음이 끌리어도 아프기만 하니 아득히 멀어서 닿을 곳을 모르겠네〔心蟬媛而傷懷兮 眇不知其所躋〕’, ‘마음에 맺혀 답답하여 풀리지 않고 각이 휘어져 막혀 트이지 않는다〔心絀結而不解兮 思蹇產而不釋〕’며 민생의 질고 및 그것에 대한 인간적 동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서 ‘요순 임금의 고결한 품행은 너무도 높고 맑아서 하늘에 닿았다〔堯舜之抗行兮 瞭杳杳而薄天〕’며 성군의 덕치를 바란다. 그리고 ‘온화한 나의 아름다움을 싫어하고 남의 거짓 소리를 좋아한다〔憎愔愔之修美兮 好夫人之愷慨〕’면서 자기의 불행을 읊고 ‘진실로 내 죄를 버림받은 것이 아닌데 어찌 밤낮으로 잊을 수 있겠는가〔信非吾罪而棄逐兮 何日夜而忘之〕’ 라며 억울하게 유배를 당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아! 나의 영혼은 돌아가고 싶으니 어찌 한순간엔들 잊을 수 있으리. 하구를 등지고 서쪽을 생각하니 고향땅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 것을 슬피한다.……새는 날아 고향으로 돌아오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살던 언덕으로 돌리는데〔羌靈魂之欲歸兮 何須臾而忘反 背夏浦而西思兮 哀故都之日遠……鳥飛反故鄉兮 狐死必首丘〕’ 라며 숨길 수 없는 인간의 회귀본능과 순국의 애국주의정신을 나타냈다.

「섭강(涉江)」은 두 번째 유배 때 서포(溱浦)에 이르러 지은 것이다. 이 시는 서포에 들기까지의 경로를 쭉 이야기하고 ‘아득한 깊은 숲 어두워지니, 원숭이들의 거처로다. 산은 험하고 높아서 해를 가리고, 아래는 깊고 음침해서 비가 많다네. 싸락눈은 아주 많이 내려 끝이 없고, 구름은 자욱하게 처마에 닿아 있네[深林杳以冥冥兮 猿狖之所居 山峻高以蔽日兮 下幽晦以多雨 霰雪紛其無垠兮 雲霏霏而承宇]라고 읊으며 산천 경계의 험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험악함만이 아닌 상징성을 띠고 있다.

‘난사에 이르기를, 난(鸞)새, 봉황 같은 길조들은 나날이 멀어져 가고 제비, 참새, 까마귀, 까치 같은 잡새들은 고당과 뜰에 짓들며, 신초와 신이풀이 무성한 숲속에서 죽고 비린내 나는 악취는 잘 쓰여지는데, 향기 나는 것은 쫓겨나네. 음과 양(즉 소인과 군자)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고 때가 온당치 않으니, 진실된 마음을 품고서 실의에 짓어 있다가 나는 장차 떠나리라[鸞鳥鳳皇日以遠兮 燕雀烏鵲巢堂壇兮 露申辛夷死林薄兮 腥臊並御芳不得薄兮 陰陽易位時不當兮 懷信侘傺忽乎吾將行兮]’며 작품의 마지막에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자신 같은 군자는 재야로 쫓겨나고 소인배만 조정에 남아 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마천은 굴원의 절필로 「회사(懷沙)」를 씀는다. 이 시에 보면 현실은 ‘흰색이 변하며 검게 되고 위가 바뀌어 아래가 되는구나[變白以爲黑兮 倒上以爲下]’, ‘마을의 개들이 떼지어 짓으니 짓는 것이 이상하다. 준결한 사람을 비난하고 의심하니 진실로 비천한 태도로다[邑犬之群吠兮 吠所怪也 誹俊疑傑兮 固庸态也]’, ‘세상이 혼탁하여 나를 알아

주지 아니 하니 사람의 마음일랑 말하기도 싫도다[世混濁莫吾知 人心不可謂兮]면서 흑백이 전도된 혼탁한 세상에 대한 절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유가의 ‘마음과 뜻을 달래며 원한이 있어도 스스로 누르고[撫情效志兮 冤屈而自抑]’, ‘인의를 중히 여기며 삼가고 온 후함이 매우 크구나[仗節死義 重仁襲義兮 謹厚以爲豐]’ 하며 절의와 인의를 주장한다. 자기의 이름도 절의와 인의를 취해 지어진다. ‘내 이름을 정즉이라 했고 자는 영균으로 했다[名余曰正則兮 字余曰靈均]’ 즉 ‘인의(仁義)’를 핵심으로 한 생명본체의 구축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근심을 떨치고 슬픔 속에도 즐겨 하리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로다[舒憂娛哀兮 限之以大故]’로 생명의식을 고양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순임금을 만날 수 없으니 누가 나의 온화한 거동을 알겠는가[重華不可遇兮 孰知余之從容]’ 하며 비탄한다. 결국 마지막에 ‘뜻사람이 살아가는데 각각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넓히며 내가 무얼 두려워 하리오[萬民之生, 各有所錯兮 定心廣志, 余何畏懼兮]’,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으니 군자에게 밝히 아뢰나니 나의 충절이 후세의 사표가 되리라[知死不可讓, 願勿愛兮 明告君子 吾將以爲類兮]’며 죽음으로 자기의 지조를 지킬 뜻을 내비친 절명시를 남긴다.<sup>3</sup>

3. 「회사(懷沙)」에 대해 필자의 이런 사회정치학적 해석보다는 토가족(土家族)의 장례민속에서의 ‘회사(回沙)’를 나타냈다는 민속학적 해석을 하는 관점도 있다.

### 1) 비회풍(悲回風)

「비회풍(悲回風)」의 ‘회오리바람이 혜초를 흔들며 서글퍼져 마음은 원한 맺히고 속만 상하는구나[悲回風之搖蕙兮 心冤結而內傷]’, ‘지난 날의 소망이 헛된 것을 한탄하여 내일의 쓰라림을 한없이 안타까워하노라[吾怨往昔之所冀兮 悼來者之惓惓]’, ‘애끓은 한숨소리, 그지없는 슬픔이 일어 가슴의 울분을 억제하지 못하노라……마음에 맺히어 펼 수 없으니 기분이 뒤틀리어 제 몸을 얻고 있도다[傷太息之愴憐兮 氣於邑而不可止……心鞶羈而不形兮 氣繚轉而自締]’에서 마음에 울분이 쌓이고 답답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는 시적 자아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황하의 물가를 멀리서 바라보니 신도의 높은 뜻을 우러러 슬퍼하노라[望大河之洲渚兮 悲申徒之抗跡]’, ‘개차추가 계신 곳을 이리저리 찾다가 백이와 숙제 숨어살던 자취를 밟아본다[求介子之所存兮 見伯夷之放跡]’의 구절에서 자연, 역사적 감회를 읊다가 ‘나 같은 외로운 사내가 눈물을 흘리고 쫓겨난 나그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孤子唵而捫淚兮 放子出而不還]’에서는 시적 자아의 현실적 비극을 토로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홀로 숨어 깊은 상념에 젖는다[獨隱伏而思慮]’로 조용히 사색의 즐거움을 느끼고 ‘애오라지 천천히 스스로 마음을 달래려니[聊逍遙以自恃]’라는 표표한 소요유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적 자아를 등장시키고 있다.

「석왕일(惜往日)」에서 시적 자아는 ‘지난날에 일찍이 신임을 받은 것이 서글프니 명령을 받아 정치를 올바르게 했도다. 여러 군주를 받들

어 민중을 밝게 하고 법도 가운데 험오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을 밝게 하였다[惜往日之曾信兮 受命詔以昭詩 奉先功以照下兮 明法度之嫌疑]’에서 보다시피 왕의 신임을 얻고 조서를 받기도 하며 선인들의 업적으로 사람들을 교화하기도 하고 법을 밝히기도 했다.

‘백리해가 포로가 되었던 것을 들었고 이윤도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이었다. 여망은 조가에서 도축을 했고 영척은 노래하며 꼴을 먹었다. 당·무·제·목의 어진 군주를 받들지 못했다면 세상의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알 수가 있었으랴[聞百里之爲虜兮 伊尹烹於庖廚 呂望屠於朝歌兮 甯戚歌而飯牛 不逢湯武與桓繆兮 世孰云而知之]’라는 구절에서는 백리해, 이윤, 여망, 영척 등이 탕무, 제환을 만나 중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어디까지나 ‘나라가 부강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 군주는 올곧은 신하에게 맡기어 나날이 즐거웠다[國富強而法立兮 屬貞臣而日臧]’는 법치를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은 ‘군주는 천리마를 타고 여기저기 달리는데 고삐도 재갈도 없이 제멋대로 타며 뗏목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노도 없이 자기 혼자 조종한다. 법도에 어긋나게 정치를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위의 비유한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乘騏驎而馳騁兮 無轡銜而自載 乘汜汭以下流兮 無舟楫而自備 背法度而心治兮 辟與此其無異]’고 비판한다.

또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어찌 나의 꽃다운 몸은 일찍 죽어야 하는가 작은 서리가 내려와 백성들이 경계하니[何芳草之早歿兮 微霜降而下戒]’,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고문하여 멀리 추방하고 진실을 생각지도 않는구나. 혼탁한 참소와 아침을 믿고 군주는 기세와 뜻을 성하게 하여 과실을 책망하였으니 어찌 올바른 신하가 아무 죄가 없어도 비방



을 당하여 원망을 받게 하는가[弗參驗以考實兮 遠遷臣而弗思 信讒諛之 溷濁兮 盛氣志而過之 何貞臣之無罪兮 被離謗而見尤]’ 등으로 현실은 구할 수 없이 피비린내가 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진심을 펼쳐 뽑아내어 믿게 할 수 있으리. 죽음을 편안히 여겨 구차히 하지 않으리라[焉舒情而抽信兮 恬死亡而不聊], ‘원수와 상수의 깊은 물에 임하여 마침내 스스로 참아 물에 빠지리라[臨沅湘之玄淵兮 遂自忍而沈流]’ 등에서 견결한 순절의지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이 시는 ‘글을 끝내고는 못에 뛰어들었다[畢辭赴淵]’는 것을 시를 지어 스스로를 밝힌[賦詩自明(證)] 셈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구장(九章)』의 유배시는 굴원의 평생의 ‘심령의 사시[心靈史詩]’로서 주관의 객관화를 통하여 시적 세계를 펼쳐보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굴원의 ‘시를 지어 울분을 토로하고 뜻을 읊고 스스로를 구하고 증명하는 문학’이었던 것이다.

『구가(九歌)<sup>4</sup>』는 유배지 민요 및 제사가요에 근거하여 지은 한 묶음의 서정시이다. 『구가』는 단지 일반적인 민요나 제사가가 아니라 굴원의 깊은 정치적 감회를 나타내고 있다. 동한(東漢) 때 왕일의 「구가장구서(九歌章句序)」의 기록을 보자.

구가란 굴원의 작품이다. 옛날 초나라 남쪽 영 도읍에 원수 상수 사이에는 그 풍속이 귀신을 믿고 제사를 좋아했다. 그 제사는 반드시

4. 『구가』를 유안(劉安) 및 그 문객들이 지었다는 설도 있으나 본고는 정통적인 굴원 창작설을 따르도록 한다.

노래하고 북을 두드리며 노래하여 여러 신령들을 즐겁게 했다. 굴원이 조정에서 방축되어 그 지역에 유배되어 지냈다. 그는 우수를 품고 그 지독함을 괴로워했으며 우수에 젖어 울적함이 끊어올랐다. 밖에 나가 토속인들의 제사의 예절과 가무하는 음악을 보니 그 가사가 비루했다. 인하여 구가의 가락을 지어 위로는 귀신을 섬기는 경배를 진술하고 아래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보였는데 풍간에 의탁했다.

九歌者 屈原之所作也 昔楚國南郢之邑 沅 湘之間 其俗信鬼而好祠 其祠 必作歌樂鼓舞以樂諸神 屈原放逐 竄伏其域 懷憂苦毒 愁思沸鬱 出見俗人祭祀之禮 歌舞之樂 其詞鄙陋 因爲作 九歌之曲 上陳事神之敬, 下見己之冤結 託之以風諫.

이것은 『구가』에 관한 ‘민간설(民間說)’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희(朱熹)의 『초사집주(楚辭集注)』에서는 ‘다시 그들의 신을 모시는 마음에 나의 충군애국의 정을 기탁하고 연연하여 잊지 못할 뜻을 기탁한다[而又因彼事神之心 以寄吾忠君愛國 眷戀不忘之意]’ 라 했으며 왕완(汪緩)의 『초사집해(楚辭集解)』에서는 ‘굴원의 구가가사는 이 제목을 빌어 자기의 뜻과 흥을 토로하고 있다[屈子 九歌之詞 亦惟借此題目 漫寫己之意興]’ 라고 하기도 했다.

『구가』는 굴원이 유배지 초나라 원(沅), 상(湘) 지역은 ‘귀신을 믿고 제사 지내기를 좋아한다[信鬼而好祠]’ 고 한지라 백성들이 짝 하면 제사의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가무가 동원되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비리하고 거칠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굴원의 『구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희(朱熹)도 동감을 표한다. 즉 ‘굴원은 유배되어 눈에

띄는 대로 느낀 바가 있어 그 가사를 고쳐 안이함을 제거했다[原既放逐 見而感之 故頗爲更定其詞 去其甚秦] 고 했다. 『구가』의 매 편은 한 주인공을 둘러싸고 묘사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각기 운중군(雲中君), 상군(湘君), 상부인(湘夫人), 대사명(大司命), 소사명(少司命), 동군(東君), 하백(河伯), 산귀(山鬼), 국상(國殤) 등이다.

이런 주인공들은 대개 상서(湘西) 민간의 신이다. 『구가』는 아홉 신에 제사 지내는 노래이다. 『구가』에는 농후한 무속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구가』의 편목배치도 무속제의적 형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들테면 『구가』의 첫 편 「동황태일(東皇太一)」은 신을 모시는 청신가에 가깝고 마지막 편 「초혼(招魂)」은 신을 보내는 송신가에 가까운데 오늘날 상서토가족(湘西土家族)의 민속에서 아직도 확인할 수 있다. 『구가』에는 「동황태일」, 「동군」, 「운중군」, 「상군」, 「상부인」, 「소사명」, 「대사명」, 「원유(遠遊)」, 「산귀(山鬼)」, 「국상(國殤)」, 「초혼(招魂)」 등 11편 시가작품이 포함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동황태일」은 초나라의 최고신에 바치는 노래이다. 「동군」의 ‘푸른 구름옷에 흰 무지개 치마, 긴 화살을 들어 올려 별을 쏘고 활을 잡고 몸을 돌려 서쪽으로 내려가 북두를 거머쥐고 술을 따라 마신다[靑雲衣兮白霓裳 舉長矢兮射天狼 操余弧兮反倫降 援北斗兮酌桂漿]’, ‘밝은 해가 돋는다, 동녘에서 내 난간을 비춘다, 부상에서[噉將出兮東方 照吾檻兮扶桑]’ 등은 역대 뜻있는 지사들의 신선적 색채가 진한 인생의 최고경지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고 있다.

「운중군」의 ‘용수레 타고 천제의 옷 입고서 잠시 곳곳으로 날아다니도다. 신령이 찬란하게 반짝이며 내려와어느덧 구름 속 멀리 떠올라[龍駕兮帝服 聊翱遊兮周章 靈皇皇兮旣降 焱遠舉兮雲中]’ 는 천상에서

노니는 운중군(雲中君)을 보여주고 있다.

「상군」과 「상부인」은 각기 ‘방주의 두약을 캐다가 하계(下界)의 여자에게 바치리[采芳洲兮杜若 將以遺兮下女]와 ‘물 속에 집을 짓고 연잎으로 지붕을 이어라. 창포 벽에 자주빛 조개 껍질 깐 마당에 향기로운 산초를 방 가득히 뿌리고[築室兮水中 葺之兮荷蓋 蓀壁兮紫壇 播芳椒兮成堂]’, ‘모래톱의 두약을 뽑아다가 멀리 계신 분께 바치리[搴汀洲兮杜若 將以遺兮遠者]’로 신비한 속에 신을 즐겁게 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소사명」의 ‘공작 날개의 수레 뒷개와 물총새 깃털의 깃발 하늘에 올라 혜성을 어루만지고[孔蓋兮翠旒 登九天兮撫彗星] 나 ‘하늘문을 활짝 열어 나는 자옥한 먹구름 타고 회오리바람 앞서게 하여 소나기로 티끌먼지 씻어내노라[廣開兮天門 紛吾乘兮玄雲 令飄風兮先驅 使溼雨兮灑塵]’에서는 하늘에 올라가 별을 쓰다듬고 구름을 타며 비바람 속을 오가는 사제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원유(遠遊)」에는 ‘무위를 초월하여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서 태초와 함께 이웃이 되었어라[超無為以至清兮 與泰初而為鄰]’라는 구절에 무위를 초탈하고 태초와 이웃으로 하여 노니는 시적 자아가 등장한다. 그러면서 ‘생각하니 끝없이 무궁한 천지에서 인생의 기나긴 고생을 애달파 하노라 지나간 옛 사람 만나지 못하고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구나[惟天地之無窮兮 哀人生之長勤 往者餘弗及兮 來者吾不聞]’라고 하여 천지자연의 무궁함과 인생살이의 지난함을 슬퍼하며 원유, 즉 멀리 떠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불관언하려는 소극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 탕개를 늦추지 않고 분발 노력하는 굴원의 일관된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산귀(山鬼)」는 굴원이 유배지 사가족(士家族) 선민들이 매상(梅娼)을 공경하는 제사의식을 보고 매상에게 올리는 노래가사에 기초하여 창작한 것이다. ‘산간에서 지초를 캐려해도 바위 무더기 첩첩이 쌓이고 닝쿨이 엉겨서[采三秀兮於山間 石磊磊兮葛蔓蔓], 나 ‘붉은 표범을 타고 얼룩 너구리 데리고 목련 수레에 계수나무 깃발을 매어 석란을 옷 입고 두형 띠 두르고 향기로운 꽃을 꺾어 사랑하는 이 드리고파. 내가 깊은 대 숲에 머물러 하늘도 보이지 않고 길이 험난하여 홀로 뒤에 따라와[乘赤豹兮從文狸 辛夷車兮結桂旗 被石蘭兮帶杜衡 折芳馨兮遺所思 余處幽篁兮終不見天 路險難兮獨後來]’ 등에서 사냥을 하는 정경 및 분위기, 그리고 그 과정의 어려움을 아주 핏진하게 나타냈다. 「산귀」는 전반 『구가』에서 가장 생동적으로 그린 여성형상이다.

「국상(國殤)」은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초나라 장병들을 추모한 것이다. 이 시는 초나라가 참패한 한 차례 전쟁을 원형으로 하여 장병들의 처절한 싸움 및 비장한 헌신을 노래하면서 통치자들의 혼란과 무능을 여지없이 폭로 비판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노래했다면 뒤 부분에서는 국상(國殤)정신을 노래하며 국치를 씻을 희망을 토로하고 있다. 초나라 장병들은 실로 ‘한 번 나간 장사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出不入兮往不反], ‘진실로 용감하고 무에 뛰어났으니 언제나 강인하고 끝내 능욕할 수 없었어라[誠既勇兮又以武 終剛強兮不可凌], ‘끝내 장렬히 모두 죽고 들판에 버려졌다[嚴殺盡兮棄原野]’고 한다. 그들은 ‘몸은 죽었어도 혼백은 죽지 않고 귀신으로 영웅’이 되었다.

「초혼(招魂)<sup>5</sup>」은 일종의 무속적인 혼 부르기 형식으로 진나라에 억류되었다가 잘못된 초희왕 혹은 굴원 스스로의 명복을 빈 노래라고 한다.

‘돌아오라, 혼이여! 군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네. 호랑이와 표범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해치네. 아홉 머리의 사나이는 9천의 나무를 뽑네. 이리와 승냥이들은 눈을 부릅뜨고 총망히 오락가락하네. 사람의 머리를 베어 깊은 못에 던지네. 목숨을 제왕에 이르게 한 다음 조용히 명상에 들겠네[魂兮歸來 君无上天些 虎豹九关 啄喜下人些 一夫九首 拔木九千些 豺狼纵目 往来侏侏些 悬人以媮 投之深渊些 致命于帝 然后得瞑些]」라고 하면서 ‘봄날의 난초와 가을날의 국화는 끝없이 핀다[春蘭兮秋菊 长無絶兮終古]」고 하여 영생에 대한 일종의 갈망을 보여준다.

『구장』과 『구가』에 수록되지 않은 굴원의 유배시로는 「복거(卜居)」, 「어부(漁父)」, 「천문(天問)」, 「구탄(九叹)」, 「구회(九懷)」, 「구초(九招)」 등이 있다. 「복거」는 굴원의 실제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나는 차라리 정성을 다하여 소박하면서 성실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는 건 보내고 오는 건 수고로이 받아 적당히 처신하며 무사하게 살 것인가? 차라리 띠풀을 호미질 하며 힘써 밭이나 갈 것인가? 아니면 큰 사람과 어울리며 이름을 낼 것인가? [吾寧悃悃款款 朴以忠乎 將送往勞來 斯無窮乎 寧誅鋤草茅 以力耕乎 將游大人以成名乎]」라는 것에서 보다시피 이런저런 현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어부」는 굴원이 자살하기 얼마 전에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어

---

5. 이 작품에 대해 왕일은 송옥(宋玉)의 작으로 꼽고 사마천은 굴원의 작으로 꼽는다. 본고는 사마천의 관점을 따르도록 한다.

부」는 ‘굴원이 쫓겨나 강호에서 노닐며 못가에서 시를 읊조리고 다니는데 안색은 초췌하고 모습은 수척해 보였다[屈原既放，遊於江潭，行吟澤畔，顏色樵悴，形容枯槁]」로 시작한다. 굴원의 유배행색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호호탕탕한 원강과 상강, 그 흐름은 도도하여라. 먼 길은 그윽하고 가리워졌으라. 길은 멀고 멀더라[浩浩沅湘 分流汨兮 修路幽蔽 道遠乎兮]」에서 보듯 굴원은 실로 더 없는 억울함을 당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심을 강물에 하소연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어부는 굴원에 향해 빙그레 웃으며 ‘맑으면 머리를 씻고 더러우면 발을 씻는다[淸斯濯纓 濁斯濯足]」 하는 유연한 인생태도를 제시한다. 그러나 결국 ‘차라리 상강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장사지낼지언정 어찌 결백한 몸으로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소?[寧赴湘流 葬於江魚之腹中 安能以皓皓之白 而蒙世俗之塵埃乎]」 하고 답하는 굴원의 고지식하고 답답함에 ‘다시 말을 해주지 않는다[不復與言]」 고 할 수밖에 없다.

어부는 진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지만 굴원은 ‘세상이 다 혼탁한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다[舉世皆濁我獨淸 衆人皆醉我獨醒]」 는 모습을 보여준다.

「천문(天問)」은 굴원의 유배사에서 특이한 작품이다. 동한(東漢) 때 왕일(王逸)의 「천문장구서(天問章句序)」에 의하면 굴원이 유배되어 침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는데 초나라 선왕의 문묘 및 공경대부들의 사당에 천지산천의 신령 및 고대 성현들의 괴이한 일들이 그려져 있는 것

을 보고는 ‘벽에 써놓고 물었다[因書其壁，呵而問之]’<sup>6</sup> 하여 지었다고 한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대자연에 관한 신화, 전설사이고 후반부는 하(夏), 상(商), 주(周)의 흥망사를 슬회하면서 역사 의식을 드러냈고 마지막 부분은 나라를 근심하고 스스로를 서러워하는 현실정치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체제가 기이하고 규모가 방대한 장시다.

전반 시는 물음형식을 취했는데 연이어 170여 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주창생의 원시자연으로부터 인간 역사의 변천 및 시인 자신의 눈앞의 초나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종다양하다. 신화, 전설이 어우러지고 역대 흥망성쇠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옛적에 누가 도를 전했던가? 아래 위에 형태를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증하겠는가? 아득하고 흐리터분한 그 신비한 곳에 그 누가 닿을 수 있겠는가? 날개 달려 표유하는 듯한 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遂古之初 誰傳道之 上下未形 何由考之 冥昭瞢闇 誰能極之 馮翼惟像 何以識之]’ 등으로 실로 천문, 지리, 역사, 정치 등 다 방면에 걸친 회의정신과 지적 탐구정신 및 문학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일련의 물음 속에 시적 자아의 세속에 매이지 않은 역사 의식 및 권위를 멸시하는 비판정신, 그리고 이상에 대한 집착이 돋보인다.

굴원은 이런 거침없는 물음으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울분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사마천은 「굴원열전(屈原列傳)」에서 이

6. 당(唐)대의 류종원(柳宗元)은 「天對(천대)」를 지어 굴원에 호응하고 있다.

7. 물론 「천문(天問)」에 대해 단지 굴원과 영하(櫻下) 학자들의 단순한 문답요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천문」에 대해 지대한 공감을 나타낸다. ‘하늘은 인간의 시초를 이루고 있다. 부모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인간은 궁하게 되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함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 하늘에 호소하게 된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부모에 호소하게 된다[夫天者人之始也 父母者人之本也 人窮則反本 故勞苦倦極 未嘗不呼天也 疾痛慘怛 未嘗不呼父母也]’ 면서 ‘천문구장가는 호탕하다[天間九章歌浩蕩]’ 고 했다.

이외에 「구탄(九嘆)」, 「구회(九懷)」에서는 물의 신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탄(九嘆)」에서는 ‘굉함을 사모하여 물에서 노닐[思彭咸之水遊]’ 기도 하고, ‘홀로 외로이 남녘으로 가[獨戢戢而南行]’ 기도 한다. 「구회(九懷)」에서는 ‘찰찰 넘치는 회하의 물이 흘러 사라진다. 물 위의 배는 아래 동쪽으로 흘러든다. 교룡이 인도하고 문어가 떠간다… …하백이 문을 열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네[望淮兮沛沛 濱流兮則逝 榜舫兮下流 東注兮磕磕 蛟龍兮導引 文魚兮上瀨……河伯兮開門 迎余兮歡欣]’ 등 대량의 편폭으로 굴원의 물놀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방삭이 굴원이 죽어 ‘맑은 물속의 교룡과 논다[戲疾瀨之素水]’ 고 한 것은 이것에 대한 좋은 주석으로 해석된다. 「구초(九招)」에서는 아름다운 사회상은 ‘아름다움은 빼어나고[美冒衆流]’, ‘위엄과 우아함[威文]’ 을 아울러 갖추고 ‘아름다움과 착함[美善]’ 의 통일에 있다고 한다. 즉 ‘너른 밭과 고을에 인문이 번성하다. 아름다움은 빼어나고 덕은 글을 덮는다. 먼저 위엄을 부리고 후에 우아함을 보여주며 착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더라[田邑千畛 人阜昌只 美冒衆流 德澤章只 先威後文 善美昌只]’ 고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구가(九歌)』 는 체험적이기보다는 시적 모멘트를

객관에서 구하고 객관의 주관화를 통하여 시적 세계를 펼쳐 보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당시 시대적, 사회적, 민속적 등 사항을 이해하는 데 유조하다.

### 3. 「이소(離騷)」 집중조명

굴원의 유배시는 뭐니뭐니 해도 장편 서정시 「이소(離騷)」다. 『초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소」를 보면 틀림없다. 「이소」는 굴원 유배시의 집대성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소」는 바로 소체시(騷體詩)의 본체가 되어 한 시대의 문학[一代文學]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소」는 두 번째 유배되었을 때, 즉 원강과 상강 사이 9년(沅湘之間九年) 사이에 지은 것으로 사료된다. 사마천의 「임안에게 주는 글[報任安書]」에 보면 ‘굴원은 추방되자 「이소」를 지었다[屈原放逐 乃賦離騷]’ 고 한다.

「이소」라는 제목에 대해 역대로 ‘이우(離憂, 우환을 당하다. 사마천)’, ‘조우(遭憂, 우환을 당하다. 반고(班固))’, ‘이소(離騷, 시끄러움을 당하다. 양웅(揚雄))’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것은 굴원이 당했거나 불평불만을 부린다는 비극적 색채를 띠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소」에 보면 굴원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첫 대목에 ‘고양제의 묘예여! 나의 황고는 자가 백용이시네. 섭제의 맹추 경인일에 나는 탄강하였네. 황고는 나를 초도에 헤아리시고 비로소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 주셨네. 이름을 정칙이라 하고 자를 영균이라 하셨네[帝高陽之苗裔兮 朕皇考曰伯庸 攝提貞于孟陬兮 惟庚寅吾

以降 皇覽揆余初度兮 肇錫予以嘉名 名余曰正則兮 字余曰靈均』라고 쓰고 있다.

굴원은 스스로 전항고양씨(顛頊高陽氏)의 후예라고 한다. 고양제(高陽帝)는 서부의 곤륜에서 태어났다. 일종 태양신이다. 굴원은 「이소」에서 4번이나 고양(高陽)을 거론한다. 그리고 남방의 순(舜)을 자기의 호소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인년정월(寅年正月)초하루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범상치 않은 기개를 높게 사 ‘정칙(正則)’라는 이름을 짓고 ‘영균(靈均)’이라는 자를 지었다고 한다. 또한 굴원은 스스로 ‘옛날 삼후의 순수하심이어! 진실로 못 향기로움 간직하고 계셨네[昔三后之純粹兮 固衆芳之所在]’라고 자부하며 ‘모략은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고 지혜는 나라의 우환을 해결할 수 있으며 위엄은 강적을 제어할 수 있고 인덕은 먼 곳의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다[謀足以安社稷 智足以解國患 威能制強御 仁能懷遠人也]’며 ‘모(謀), 지(智), 위(威), 인(仁)’에 걸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

굴원은 위낙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의 뜻을 가졌다. 수신(修身)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보자. 그는 화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수양에도 힘쓴다. 한마디로 진, 선, 미에 대한 추구로 개괄해 볼 수 있겠다.

그는 ‘마름과 연잎으로 옷을 지어 저고리를 만들고 부용을 모아 치마 만든다[制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 ‘강리와 벽지를 몸에 걸치고 추란을 꿰어서 노리개를 만들어 몸에 찬다[扈江離與辟芷兮 纫秋蘭以爲佩]’, ‘나무뿌리 캐어서 백지를 묶어 벽려의 떨어진 꽃술을 꿰어서 균계를 바꾸어 헤초를 엮노라 호승으로 꼬아 만든 어여쁜 끈[擘木根以

結菑兮 貫薜荔之落蕊 矯菌桂以芻蕘兮 索胡繩之纏纏]으로 치장을 하고 ‘내 갓을 우뚝 높임이고 내 노리개 길게 늘이리[高余冠之岌岌兮, 長余佩之陸離]’ 등과 같이 높은 모자에 긴 칼을 차고 위용을 떨친다.

은 몸과 집안은 ‘노리개 변화하게 꾸미며 차니 향기가 물씬 풍겨 가득하다[佩繽紛其繁飾兮 芳菲菲其彌章]’, ‘납가세, 조개풀, 도꼬마리 방 안에 가득함이어[菘薤以盈室]’ 등에 보이는 표현처럼 집안은 향기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게다가 나는 고운 성품을 지녔고 또 그 위에다 훌륭한 재능을 닦았다[紛吾既有此內美兮 又重之以修能]’고 자찬하고 있다.

‘아침엔 목란에 구르는 이슬 먹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지는 꽃잎 먹는다[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 거나 ‘내 말을 난초 우거진 못에 거닐게 하고 산초 언덕을 달리게 하려 여기 잠깐 쉬게 하리라[步余馬於蘭皋兮 馳椒丘且焉止息]’ 등의 표현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고 신성한 신선적 경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항상 ‘바쁘게 달려 쫓아감이어 내 마음에 절실한 것은 아니다. 늙음이 천천히 장차 다가옴이어 훌륭한 이름 남기지 못할까 두렵다[騫以追逐兮 非余心之所急 老冉冉其將至兮 恐修名之不立]’고 한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이런 진, 선, 미에 대한 추구를 굽히지 않는다. ‘사람의 삶에 저마다 좋아하는 것 있음이어 나는 착함이 좋아 법도로 삼고[民生各有所樂兮 余獨乎修以爲常]’, ‘마음 굽히고 뜻 억눌림이어 허물 참고 꾸밈음을 물리친다[屈心而抑志兮 忍尤而攘垢]’, ‘또한 내 마음의 착함이어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 없으리라. 비록 내 몸이 찢겨져도 변하지 않으리니 어찌 내 마음 두려움 있으랴[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悔 雖體解吾猶未變兮 豈余心之可懲]’ 하는 것은 바로 이

것을 말해준다.

제가(濟家)를 보자. 그는 제자들을 키운다. ‘나는 이미 구원의 난초를 기르고 또 백무의 헤초도 심었다. 유이와 계차를 받두둑으로 나누고 두형과 방지도 섞어 심었노라[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 畦留夷與揭車兮 雜杜衡與芳芷]’, ‘방주에서 두력을 캐고[采芳洲兮杜若]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기를 바라고 때 기다려 나는 베려 했더니[冀枝葉之峻茂兮 愿蒞時乎吾將刈]’ 는 때가 되면 제자들과 손잡고 크게 한 번 개혁정치를 펼쳐볼 판이라는 암시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수상함에 따라 제자들도 떠나가거나 배반하기도 한다. 즉 ‘세월은 쉼 없이 흘러 봄과 가을이 교대로 바뀌어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니 임이 내게 늦게 오심이 두려워진다[日月忽其不淹兮 春與秋其代序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 ‘난초와 백지 변하여 향기롭지 못하고 전풀과 해초 변하여 띠풀로 되었도다[蘭芷變而不芳兮 荃蕙化而爲茅]’, ‘아 속은 비고 겉모양만 길구나[羌無實而容長]’ 하고 만다. 그래서 ‘시들어 버린들 그 무엇이 슬프냐. 수많은 꽃 향기가 잡초에 묻혀 슬피도다[雖萎絕其亦何傷兮 哀衆芳之蕪穢]’ 라며 자탄할 밖에. 그는 ‘군주의 마음은 나와 같지가 않음[人之心不與吾心同]’ 을 절감한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보자. 그도 언젠가는 임금과 손이 척척 맞아떨어져 ‘준마 타고 달리시면 나는 앞길을 안내하리라[乘騏驎以馳騁兮 來吾道夫先路]’, ‘바빠 달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선왕의 뒤를 따른다[忽奔走以先後兮 及前王之踵武]’ 에서는 임금을 보필하며 앞뒤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뛰었다. 그는 ‘아름다운 정치’ 이상을 실현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아름다운 정치 이상은 우선 인정(仁政)과 덕치다. 그는 정면으로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어서 백성의 덕을 살피고 도울 사람 내리시니 성인과 철인의 거룩한 행동에 달려 쓰여지며 누가 착하지 않고서 감복시킬 수 있을까[覽民德焉錯輔 夫維聖哲之茂行兮 苟得用此下土 夫孰非義而可用兮 孰非善而可服]’ 라며 인정과 덕치사상을 피력한다. 그리고

‘나는 그 옛날 현인을 본받음이여 세속의 옷도 아니어서 요즘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도 팽함이 남긴 법도를 따르리라[審吾法夫前修兮 非世俗之所服 雖不周於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 ‘청백함에 굴복하고 정직함으로 죽음이여 진실로 옛 성인의 두터운 마음이라[伏清白以死直兮 固前聖之所厚]’ 면서 선대 성인성군의 뜻과 위업을 이어받기를 희망한다.

그는 역대 성군들을 내세운다. 그는 ‘저 요순의 빛나는 덕행이여 이미 도리를 좇아 제 길을 얻었니[彼堯舜之耿介兮 既遵道而得路]’ 로 ‘존도득로(遵道得路)’ 하는 요순과 ‘탕왕과 우왕은 존엄하고 공경스러웠고 주나라는 도리어 도를 논하고 어긋남이 없다[湯禹儼而祇敬兮 周論道而莫差]’ 며 탕우(湯禹), 문무(文武)를 찬양한다.

이에 반해 역대 폭군들을 비판한다. ‘어찌 걸왕과 주왕의 창피스런 행동이라 오직 지름길로만 허둥대는가[何桀紂之昌披兮 夫唯捷徑以窘步]’, ‘후에는 방탕하여 돌아다니며 사냥에 빠져 또한 활쏘기를 좋아하여 여우만 기르네[羿淫游以佚田兮 又好射夫封狐]’, ‘하나라 걸왕은 항상 도리에 어긋나 마침내 재앙을 만났다[夏桀之常違兮 乃遂焉而逢殃]’, ‘하나라 왕들은 즐기며 스스로 방탕하여[夏康娛以自縱]’ 등의 구절에서 하갈(夏桀), 상주(商紂), 익(羿) 등 역대 폭군들의 말로가 좋지 못함을 피력했다. 비의(非義, 의롭지 못함), 비선(非善, 착하지 못함)한 정치는 좋은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다.

굴원은 현실 임금의 허물도 서슴없이 꼬집는다. 초나라 임금에 대해 ‘길을 잘 살피지 못함을 후회하여 머뭇거리며 나는 돌아가려 한다. 내 수레를 돌려 내 길로 돌아감이어 잘 못 가던 길 더 멀어지기 전에[悔相道之不察兮 延佇乎吾將反 回朕車以復路兮 及行迷之未遠]’, ‘젊고 건강 할 동안에 더러움을 버리지 않고 어찌 이것을 고치지 않으실까[不撫壯而棄穢兮 何不改乎此度]’, ‘원망스러워라 임의 분별없음이어 끝내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십니다[怨靈修之浩蕩兮 終不察夫民心]’, ‘임의 잦은 이별에 가슴 아파라[傷靈修之數化]’, ‘황혼으로 약속으로 정한다 하더니 낮에 중도에서 길을 고치셨다. 처음에는 내게 약속하시더니 나중에 돌아서 판 마음 가지실 줄이야[日黃昏以爲期兮 羌中道而改路 初既與余成言兮 後悔遁而有他]’ 라며 당시 임금을 비판했다.

보다시피 초나라 임금은 실정을 살피지 않고 소인배들의 말만 믿으며 번덕스럽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마구잡이로 놀아났다. 초나라 임금에 대한 굴원의 이런 태도는 이른바 ‘책수회왕(責數懷王)’<sup>8</sup>이 되겠다. 물론 굴원이 초나라 임금에 대해 불평불만을 부린 것은 그 한 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아니다. ‘어찌 내 일신의 재앙만 꺼리랴. 임금님 수레 앞서질까 두려워라[豈余身之憚殃兮 恐皇輿之敗績]’ 라며 그는 사실 ‘황여(皇輿)’로 대변되는 초나라 종묘사직을 근심걱정했던 것이다.

‘미정(美政)’ 이상의 실현을 전적으로 임금에게 건, 또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굴원은 지대한 실의에 빠진다. ‘많은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없음이어 누가 우리 마음속을 살피줄까 세상은 온통 패거리만 좋

8. 이 점에 대해서는 사마천을 비롯한 역대 문인사대부로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다.

아함이어 그 어찌 외로이 혼자 내 말을 듣지 않을까[衆不可戶說兮 孰云  
 察余之中情 世并舉而好朋兮 夫何葢獨而不余聽]’라며 굴원은 민본사상  
 으로부터 민생을 관심 있게 바라본다. ‘긴 한숨에 눈물 가림이어 백성  
 의 삶에 어려움 많음이 슬프다. 원망스러워라 임의 분별없음이어. 끝내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십니다[長太息以掩涕兮 哀民生之多艱. 怨靈  
 修之浩蕩兮 終不察夫民心]’, ‘앞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아 백성의 갈 길  
 을 살핀다[瞻前而顧後兮 相觀民之計極]’는 대목에서 폭정으로 인한 민  
 생의 피해를 애달파한다. 인도주의정신이 묻어난다.

그의 ‘미정(美政)’ 이상은 ‘현인을 천거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벼슬  
 을 주어 지은 것에 따라 치우침이 없었네[舉賢才而授能兮 循繩墨而不  
 頽]’로 일종 법치사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부열은 부암에서 흙 달구질  
 하다가 무정에서 등용되어 신임을 받았다. 여망은 칼을 치다가 주문왕  
 을 만나 천거되었고 영적은 노래 부르다가 제환공이 듣고 보좌관 삼았  
 다[說操築於傳巖兮 武丁用而不疑 呂望之鼓刀兮 遭周文而得舉 甯戚之  
 謳哥兮 齊桓聞以該輔]’에 보면 출신이 비천할지라도 현명하고 재능 있  
 는 인재가 등용될 것을 바라고 있다.

여기서 굴원은 ‘자세사(刺世事)’ 하고 있다.<sup>9</sup> 그런데 현실은 어둡기  
 만 하다. ‘세상은 혼탁해 분별이 없고 미덕은 가려지고 시기질투만 한  
 다[世混濁而嫉賢兮 好蔽美而稱惡]’, ‘진정 요즈음 세속의 공교함이어  
 그림쇠 버리고 마음대로 고쳐 버린다 먹묵을 버려두고 굵은 길 따라 다

9. 이에 대해 류안(劉安)이 『이소전(離騷傳)』에서 ‘(굴원은) 위로 임금을 노래하고 아래로 제환을 찬미하고 그 중간으로는 탕무를 서술하여 세상을 꼬집었다[屈原上稱帝嘗 下道齊桓 中述湯武 以刺世事]’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어 비위 맞추는 것을 길로 삼는다[固時俗之工巧兮 俚規矩而改錯 背繩墨以追曲兮 竟周容以爲度], ‘소인배들이 나날이 득세하고 정인군자들은 험난함을 넘어야 하네[群小日進 美人逾邁]’에서 보듯이 혼탁하고 시비곡직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사악함이 판친다. 그는 ‘누구나 쑥을 허리에 가득 두르고 그윽한 난초는 두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戶服艾以盈要兮 謂幽蘭其不可佩]’에 분개하고 ‘풀과 나무도 제대로 살지 못하거늘 어찌 어찌 구슬 보는 눈이 바르랴[覽察草木其猶未得兮 豈理美之能當]’에 대해 절망한다.

‘당인(黨人)’들은 작당과 무함을 일삼으며 ‘미정(美政)’ 이상의 실현을 방해한다. ‘사람의 좋아함과 싫어함은 각기 다르지만 오직 이들의 무리는 특별히 달라서[民好惡其不同兮 惟此黨人其獨異], ‘이 무리들 너그럽지 못하여 질투에 꺾여버릴까 두려워하노라[惟此黨人之不諒兮 恐嫉妬而折之], ‘전문 영악하고 제멋대로며[專倭以慢慝], ‘홀연히 내달고 서로 쫓는다[忽馳騫以追逐]’ 한다. 실로 이 ‘당인(黨人)’이 야말로 별 나쁜 짓을 다 하는 악미운 존재다.

여기에는 굴원의 뼈저린 체험이 녹아있다.<sup>10</sup> 그들 즉 ‘여러 계집들 내 고운 눈썹을 질투하여 나를 음란하다고 헐뜯는다[衆女嫉余之蛾眉兮 謠諑謂余以善淫], ‘많은 사람들 다투어 탐욕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여 탐색한다. 내 마음 속 밝히듯 남을 생각함이며 각자 마음 속에 이는 마음 질투하여라[衆皆競進以貪婪兮 凭不厭乎求索 羌內怒己以度人兮 各興心而嫉妒]’라고 밝힌다. 굴원은 바로 ‘중녀(衆女)’, ‘당인(黨人)’

10. 굴원은 실제로 상관대부 영운 자란(令尹子蘭) 등 ‘당인(黨人)’과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많이 당했다.

소인배들의 시기질투와 모략증상을 당한다.

현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하여 그가 두 손을 든 것은 아니다. ‘나는 직언이 해로움이 됨을 알고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다. 새매가 무리 짓지 않음이어 전세부터 본래 그러했었다. 어찌 네모와 동그라미가 맞을까. 그 누가 길이 다른데도 서로 편안할 수 있으랴[余固知蹇蹇之爲患兮 忍而不能舍也, 鸞鳥之不群兮 自前世而固然 何方圓之能周兮 夫孰異道而相安]’며 예로부터 성현들이 혼자고 외로웠음을 안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죽어 물에 흘러 없어질지언정 나는 차마 이런 짓 할 수가 없다[寧溘死以流亡兮 余不忍爲此態也]’며 단호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기의 추구를 멈출 수 없었다. ‘길은 까마득하고 멀어서 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찾아다닌다[路漫漫其修遠兮 吾將上下而求索]’, 지상에서 안되면 천상으로 올라간다. ‘바빠 나는 쫓기는 듯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가 두려워서[汨余若將不及兮 恐年歲之不吾與]’ 그는 인생의 유한과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시불대인(時不待人)을 절실히 느끼는 듯하다. ‘무릎 꿇고 옷셔를 펼치고 말씀을 올려 환하게 나는 이미 중정을 얻었다[跪敷衽以陳辭兮 耿吾既得此中正]’로 돌려 깨닫게 되는 듯하다.

그래서 ‘꿈틀거리는 여덟용을 몰아 낮은 높이 날아 아득하게 달린다[駕八龍之頑頑兮 神高馳之邈邈]’, 여덟 마리 용을 몰고 의기양양하여 ‘내 치장이 한참 향기로울 때 천하를 두루 다니며 찾아보리라[及余飾之方壯兮 周流觀乎上下]’고 했다. 그러다가 ‘궁궐문을 두드렸다[上叩帝闕]’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하늘 문지기에게 문 열어 달라고 하니 천문에 기대어 나를 바라본다[吾令帝開關兮 倚閭闔而望予]’. 하늘에 올

라 뜻을 전하러 하나 전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아래로 아름다운 여자를 구한다[求女 下求佚女]’, 자기를 알아 줄 지음(知音) 즉, 자기를 구한다.

연이어 ‘필비가 있는 곳[宓妃之所在]’, ‘용의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고[見有娥之佚女]’, ‘우의 두 여자가 있음[有虞之貳姚]’에 마음을 둔 것이 바로 그렇다. 그런데 ‘지적으로 약해 소개를 잘 하지 못[理弱而媒拙]’ 하거나 ‘아름다웠으나 무례했기[信美而無禮]’ 때문에 모두 실패로 끝난다. ‘문득 돌아보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높은 언덕에 여자 없음이 서러워하며[忽反顧以流涕兮 哀高丘之無女]’는 이것을 뜻한다. 이런 ‘상하구색(上下求索)’의 실패는 굴원이 초나라에서 아름다운 정치 실현의 파멸에 다름 아니다.

혼자된 굴원은 외롭다. 그래서 영분(靈氛)과 무함(巫咸)에게 도움을 청한다. ‘경모초 구하여 집대를 만들어서 영분에게 날 위해서 점을 치게[索瓊茅以精奠兮 命靈盆爲余占之]’ 한다. 영분과 무함은 좋은 점괘가 나왔다면 멀리 떠나라고 권한다. ‘영분이 이미 나에게 길한 점괘를 주어 좋은 날을 가려서 나는 떠나리라[靈氛既告余以吉占兮 歷吉日乎吾將行]’, ‘애써 멀리 떠나 망설이지 말라 하니[勉遠逝而無狐疑兮]’ 굴원 자신은 이에 따르려고 한다. ‘어찌 떠난 마음 하나가 되랴나는 멀리 떠나 스스로 멀어지리라[何離心之可同兮 吾將遠逝以自疏]’, 하며 자기 스스로 멀리 떠나는 길을 택하러 한다.

굴원은 ‘아침에 창오를 떠나 저녁에 현포에 이르러 잠시 이곳 천문에 와[朝發劬於蒼梧兮 夕余至乎縣圃]’ ‘아침에 나는 백수를 건너러하네 낭풍산에 올라 말을 매어놓고[朝吾將濟於白水兮 登閩風而縶馬]’ 창오(蒼梧), 현포(縣圃), 백수(白水), 낭풍(閩風) 등지를 신유(神遊, 혼

백의 유람)한다. 이런 곳들은 모두 신화 속의 산인 곤륜산과 관계되는 것으로 신비한 색채로 가득하다.

이것은 ‘나의 말에게 함지에서 물을 먹이고 고삐를 부상에 매어놓고 약목을 꺾어서 해를 털어내고 잠시 거닐며 배회하노라[飲余馬於咸池兮 总余轡乎扶桑 折若木以拂日兮 聊逍遙以相羊]’에 보이는 것처럼 실로 거침없는 혼백의 유람인 신유(神遊)가 된다. 굴원은 곤륜산에 노닌다. 굴원은 분명 도가의 소요유(逍遙遊)적인 경지에서 노닌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도가의 오불관언적인, 조용히 내 한 몸만 수양하는 양생(養生)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한가하게 소요유할 수 없었다. 더구나 타국으로 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었다.

그는 도저히 고국을 떠날 수 없었다. 어쩌면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떠날 수 없었다. ‘구향(舊鄉)’<sup>11</sup> 즉 옛 고향의 상공을 지날 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저 먼 고향이 보이네 종도 슬퍼하고 내 말도 그리워하네 뒤돌아보며 나아가지 못하노라[忽臨睨夫舊鄉, 僕夫悲余馬懷兮 蜷局顧而不行]’며 탄식하게 된다. 사마천의 말을 빌리면 ‘사이불용자소(死而不容自疏)’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난사에 이르기를 모든 것 다 끝났으니 어찌 고향을 그리워할까[亂曰 已矣哉 國無人莫我知兮 又何懷乎故都]’<sup>12</sup> ‘이미 함께 좋은 정치 할 만한 이 없는데 내가 장차 팽함(彭)이 있는 곳을 찾아가리라[既莫足與爲美政兮 吾將從彭咸之所居]’고 했다.

11. 이 ‘구향(舊鄉, 옛 고향)’에 대해 왕일은 영도(鄧都)라 하고 강양부(姜亮夫)는 서방곤륜산(西方崑崙山)으로서 고양씨(高陽氏)의 발상지 초나라 조상의 장지로 보고 있다.

12. 여기서 ‘고도(故都)’는 분명히 초나라 수도 영도(鄧都)를 가리킨다.

여기서 굴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비탄하며 지기를 찾을 수 없고 ‘미정(美政)’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팽함(彭咸)<sup>13</sup>을 따라가려는 것을 통하여 순절순국의 뜻을 나타낸다. 주지하다시피 굴원의 포부는 초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초나라가 제나라와 연합하고 진나라에 대항하여 평천하(平天下)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구주의 넓고 큼을 생각[思九州之博大兮]’ 하며 갈망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역사발전 추세에 맞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이소(離騷)」는 굴원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인생전기로 볼 수 있다. 굴원 인생의 주요 행적이 모두 나와 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그의 심로역정(心路历程, 마음의 역정)이 고스란히 묻어 난다. 그의 희노애락은 장편 서정서사시가 되기에 손색없다. 그것은 또한 집단창작으로부터 개인독립창작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셈이 되겠다. 「이소」는 위의 『九章』, 『九歌』 등 유배시에서 다 하지 못한 정이나 다 풀지 못한 한을 모두 토로하고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유배시들과 구체적인 이미지나 정서상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 「이소」는 굴원의 인생 총결산이다. 사마천은 주로 이 「이소」에 근거하여 굴원의 열전을 펴냈던 것이다. 그렇다 하여 「이소」에는 굴원의 개인적인 사항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당시 사회 정치, 외교적 사항들이 많이 교직되어 있기도 하다.

그것은 굴원이 워낙 당시 정치, 외교와 직접 부딪치며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이소」는 중국 고대문학사에서 가장

13. 팽함에 대해 왕일(王逸), 홍흥조(洪興祖)는 은나라 대부로서 임금을 간하다 듣지 않으니 물에 빠져 자살한 역사인물로 보고 있다. 팽함을 팽조(彭祖)로 보며 태양신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를테면 상고신화에 태양신 및 그 궁전이 바다에 있는데 굴원이 물에 뛰어들은 것은 곧 태양신을 찾았던 것이라는 것이다.

긴 정치 서정시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 4. 나가는 말

중국에서 굴원은 위대한 애국주의 시인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의 인격미를 ‘굴원정신(屈原精神)’ 혹은 ‘굴자정신(屈子精神)’ 이라고 하며 중화민족의 귀중한 정신문화유산으로 여긴다. 그의 유배시는 이런 애국주의나 인격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프리즘이 되고 있다.

역사대가 사마천은 『사기』 「굴원열전」에 ‘그 뜻을 살펴보건대 가히 일월과 비길 만하다[推此志也 虽與日月争光可也]’ 고 했다. 또 문학대가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 「변소(辨騷)」에서 ‘기개는 옛것을 녹이고 그 가사는 절실하며 사람을 놀래울 정도로 빼어난 것으로 비교될 것이 없다[气往辄古 辭來切今 惊采絕艷 難與併能]’ 고 높이 평가받는다.

시선 이백(李白)도 「강상음(江上吟, 강 위에서 읊노라)」에 ‘굴평의 사부는 일월과 더불어 높이 솟아 있으나 초나라 임금의 누대는 빈공산 이어라[屈平辭賦悬日月, 楚王台榭空山丘]’ 며 높이 평가한다. 왕일(王逸)은 「楚辭章句」에서 「이소(離騷)」를 「經」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이소경(離騷經)」이라 부른다.

사마천은 『사기』 「굴원열전」에서 ‘나는 「이소」, 「천문」, 「초훈」, 「애영」을 읽고 그 뜻을 서러워했다’ 라고 했다. 굴원이 아까웠던 것이다. ‘믿음이 돈독했는데도 의심을 받고 충성스러웠는데도 비방을 당했는데 어찌 원망이 없겠는가?[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라며 굴원의 유배는 정치적 포부의 좌절임을 안타까워 했다.

당시 전국시대는 선비들이 택군이사(擇君而仕, 임금을 선택하여 벼슬을 함)할 주동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나라 인재가 진나라에 쓰이고 아침에 진나라를 섬겼다가 저녁에 초나라를 섬겼다[楚材晉用 朝秦暮楚]’ 고 하는 행위는 전국시대에 있어서 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마천은 ‘그의 재간으로 제후국을 유세할 때 어느 나라에서 쓰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以彼其材 遊諸侯 何國不容 而自令若是]’ 고 하며 굴원의 죽음에 대해 못내 안타까워했다. 굴원은 초나라를 떠날 수 없었다. 굴원은 전국시대 벼슬아치들의 ‘천하를 헌신짝처럼 버린다[棄天下如棄敝屣]’ 는 가벼움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시종일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 한 다음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고 했다. 굴원에게는 ‘도가 통할 때 나가고 도가 통하지 않을 때 은둔한다[有道則見 無道則隱]’ 의 유가의 유연한 가르침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우직함이 있었다.

그는 극단적인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왕일은 「이소장구서(離騷章句序)」에서 ‘그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이루었다. 그의 애국주의는 바로 여기서 고조된다. 물론 굴원의 자살은 정통적인 사대부로부터 자기 몸을 죽여 임금의 잘못을 드러냈으니 충성스럽지 못하다[殺身以彰顯君之惡 不忠也]’<sup>14</sup>거나 ‘임금을 원망하다[怨君]’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굴원은 자기의 정치적 포부의 좌절과 유배로 맺힌 한을 예술로 승화

14. 양웅(揚雄)이 이 관점의 대표주자.

시켰던 것이다. 역대로 그의 작품에 대해 ‘우수에 쌓이고 심히 생각키우는 바가 있어 「이소」를 지었다[發憤以抒情 故憂愁幽思而作 離騷]’, ‘굴평이 「이소」를 지은 것은 아마 자기의 삶이 서러워서였다[屈平之作 離騷 蓋自怨生也]’는 평은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 준다.

물론 이런 낭만주의적인 발분이서정(發憤以抒情)은 유가의 정통적인 가르침인 ‘원망스럽지만 노하지 않고 서럽지만 상하지 않는다[怨而不怒 哀而不傷]’는 온유둔후(溫柔敦厚)한 중화(中和)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로써 정통 사대부로부터 운재양기(露才揚己, 재간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지적<sup>15</sup>을 받기도 한다.

굴원의 유배시는 단순히 개인적 분노의 발로나 냇두리가 아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의미가 교직되어 있다. 그의 유배시에 대해 역대로 ‘임금을 간한다[以諷諫君也]’, ‘풍간에 기탁한다[托之以風諫]’, ‘세상을 근심하는 말이 많다[多憂世之語]’, ‘임금을 원망하고 꼬집다[怨刺其上]’, ‘글을 지어 풍간하다[作辭以諷諫]’는 등으로 평가한 것은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굴원 유배시의 의의와 가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소」를 비롯한 굴원의 유배시에는 초나라 언어, 초나라 소리, 초나라 노래, 초나라 사물, 초나라 사람 등 초나라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진하다. 특히 초나라 지역의 무속적이고 도교적인 신비한 색채가 진하다. 『九歌』의 일부 신들은 오늘날 중국 상서토가족(湘西土家族)의 민간속속에서도 일부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다.

15. 반고(班固)의 「이소서(離騷序)」에서의 ‘위지로재양기(謂之露才揚己)’라고 한 것은 그 대표적인 관점임.



예컨대 대사명(大司命)은 토가족(土家族)의 유아보호신 박박마마(帕帕嬖嬖)와 비슷하다. 소사명(小司命)은 토가족의 유아출행시의 보호신 이아낭낭(依娥娘娘)과 비슷하다. 산귀(山鬼)는 토가족의 여사냥신 매항신(梅嫦神)과 비슷하다. 굴원의 유배시는 신화와 전설이 교직되고 원시 신앙이 녹아 있다. 상상이 내려치고 신기한 심미대상이 많이 등장한다.

예술적 표현특징에 있어서 굴원의 유배시는 『시경(詩經)』의 비흥이 간단하고 즉흥적인 차원에 머물고 만데 반해 한 단계 승화되어 독특하고 전일체적인 상징체계를 이루었다. 「이소」에서 향초(香草), 향화(香花), 선조(善鳥), 영수(靈修), 미인(美人)은 기본 상징이미지가 되어 전반 작품에 유기적으로 교직되어 있다.

예컨대 미인은 명철한 임금과 현명한 신하[明君賢臣]를 가리키고 있다. 왕일(王逸)이 「이소」를 거론할 때 ‘여자로 신하를 비유했다[女以喻臣]’고 하며 ‘구녀(求女)’를 ‘현명한 신하를 구하다[求賢臣]’로 해석한 것은 그 한 보기가 되겠다. 이로부터 『초사』라는 낭만주의 신시체를 개척했다.

#### 참고문헌

- 聞一多, 「人民的詩人屈原」, 楚辭研究論文集, 北京, 作家出版社, 1957.  
 朱 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史記」,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2.  
 馬茂元, 「楚辭注釋」, 湖北人民出版社, 1985.  
 郭維森, 「屈原與莊周美學理想異同辨」, 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 1.  
 董亮夫, 「重訂屈原賦校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7.  
 王 逸, 「楚辭章句」, 嶽麓書社, 1989.  
 張偉權, 「楚辭新探」, 中南民族學院學報, 1989. 6.  
 張中一, 「屈原新考」, 貴州人民出版社, 1993.

- 荊學民,「屈原悲劇意識的文化特徵」,學術論叢,1993.2.
- 曹堯德,「屈子傳」,石家莊,花山文藝出版社,1996.
- 汪 瑗,「楚辭集解」,北京:北京古籍出版社,1996.
- 孫克強,「劉安評屈騷辨」,信陽師範學院學報,1997. 1.
- 楊 義,「楚辭詩學」,人民出版社,1998.
- 張道葵,「屈原精神與未來」,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1999. 3.
- 吳淑玲,「屈原悲劇人格的審美價值」,黃山高等專科學院學報,1999. 4.
- 洪興祖,「楚辭補注」,北京,中華書局,2002.
- 趙達夫,「屈原與他的時代」,人民文學出版社,2002.
- 李 倩,「精神特質·傳響異調·表情方法—對屈原發憤抒情論的美20」,學新審視,中國楚辭學 第1輯,學苑出版社,2002.
- 褚斌傑編,「屈原研究」,湖北教育出版社,2003.
- 周殿富,「楚辭論—歷代楚辭論選編」,長春,吉林人民出版社,2003.
- 郭 傑,「屈原的詩學」,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中國人民大學報刊複印資料),2003. 5.
- 徐志嘯,「楚騷詩學」,中國文學研究,2004. 2.
- 毛 慶,「論屈原對「九章」的整體構想及整理」,文學遺產,2004. 6.
- 程世和,「屈原困境與中國士人的精神難題」,中國文學研究,2005. 1. 27.
- 王增斌,「從香草美人透視屈原的人格魅力」,文史縱橫,2006. 1.
- 王旭送,「屈原的歷史思想」,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6. 2.
- 周 健,「屈原的愛國思想論」,四川戲劇,2006. 5.
- 冷成金,「論蘇軾對屈原詩學精神的繼承及意義」,中國人民大學學報,2006. 5.
- 曹繼華,「從離騷看屈原的文化人格和審美追求」,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6. 6.
- 曹繼華,「志在深情求索魂系悲憤遠逝—從「離騷」看屈原的文化人格和審美追求」,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6. 6.
- 趙 麗,「離騷的巫文化表徵」,長春師範學院學報,2006. 7.
- 鄒福清,「漢代屈原形象與士人文化心態」,語文學刊,2006. 24.
- 李炳海,「發憤以抒情的坦率表白和精心調遣—屈原「九章」對創作緣起的交代」,江漢論壇,2008. 6.